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Franciscan Missionaries of Mary

나눔

희망을 지피는

2024. 겨울(Winter)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관하여...

24년 개인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1월 20일 이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제외) 조회되지 않는 분들은 담당자(010-2821-8174)에게 문자로 신청해주시시오.

감사드립니다.

가족 한마당 잔치를 위해서 직접 제작해주시고 보내주신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그 소중한 마음으로 모은 아나바다 장터 수익금(6,080,740원)은 2025년 5월 몽골의 모래폭풍, 사막화로 국내 황사,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사) 푸른 아시아에 송금하였습니다.

후원나무 식재 개요

- > 식재 시기: 5월, 10월 둘째주 토요일(몽골 식목일)
- > 식재 지역: 몽골 투브 아이막(道) 바양항가이 슴(郡)
- > 지역 정보
 1.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서쪽 약 100km
 2. 가족 수가 급증하여 초지 수용능력의 3~5배 초과
 3. 초지면적이 5배 감소
 4. 복서풍의 영향으로 모래폭풍 발생 횟수 증가
 5. 산림청 상생의 숲 조림 지역(2022~)





몽골 바양노르 조림지
(2008년)

몽골 바양노르 조림지
(2022년)







경계를 넘어서, 사랑을 찾아서

오랜 기다림 끝에 FMM 수녀님들의 고향 같은 프랑스 샤텔레 수녀원을 두 번째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첫 번째 방문은 FMM 영적 가족이 되기 전인 2017년이었고, 이번에는 꼭 다시 오고야 말겠다는 갈망으로 성지순례를 위해 목주기도를 바치고 창립자의 전기, 프란치스코 성인의 전기를 몇 번씩 읽어가며 하느님과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유혜정 헬레나 (영적 가족 8기)

그래서인지 평소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나답지 않게 성지순례 일정이 나오자마자 절대로 양보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일찌감치 신청하고, 미안한 마음과 다시 가게 되었다는 안도감으로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양보하고 싶지 않은 내 마음 안에 어떤 갈망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7년 전 성지순례 때에 느꼈던 무엇이 나를 또 오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불러일으켰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샤텔레에 도착하고 하루하루 FMM 공동체 안에서 영적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무엇인지 모를 안정감, 편안함, 따뜻함, 포근함 감사 등 사랑의 마음이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내가 7년 전에 느꼈던 것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과 함께 창립자의 영성 안에서 사시는 수녀님들의 공동체가 날개를 감춘 천사들이 사는 천국이 아닐까 하는 생각했습니다. 철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샤텔레에 왔던 내가 영적 가족으로 7년을 살고 난 지금 조금은 성장한 듯하고, 내 안에 일고 있는 갈망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모르면서 순례를 왔던 내가 그 갈망을 조금씩 알아차리기 시작한 듯합니다.

바티칸 경내에 있는, 성화가 그려진 오래된 테피스트리를 복원하는 일을 하는 ‘성안나 공동체’를 방문하고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구멍투성이인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하느님은 괜찮다고, 괜찮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있다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듯했습니다. 성모자상과 피에타상을 보면서도 알았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품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나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안고 계시는 성모님의 품을 통해 하느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사랑입니다.”라는 창립자의 말씀을 온전히 느끼고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저 부족하다고만 생각했던 내 모습이 그런대로 괜찮아 보입니다. 나는 크든 작든 충분히 사랑스럽고 구멍이 있어도 그리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내 자리에 머문다면 성안나 공동체 수녀님의 말씀처럼, 수녀님들이 테피스트리의 성경 말씀을 복원해내듯, 누군가에게는 크게, 누군가에게는 조금 작게 상대방의 구멍을 메우고 내 구멍도 수리해 가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욕심부려 차지한 순례에서 갈망한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내가 갈망하고 있었던 것은 성모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며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 품을 느끼고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와서 행복하고 평화롭습니다. 나도 성모님처럼 누군가에게 나의 품을 내어주며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느님의 자녀인 영적 가족으로 살고 싶습니다.



성체조배에 매혹된 순간

프랑스 샬레 수녀원에서 하느님을 갈망하는 영혼의 짝이 된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 평소 나에게 성체조배는 조배를 하려고 할 때마다 저항하는 그 무엇이 있어 답답함과 두려움에 5분도 채 안 되어 쫓기듯 나오게 되고 그럴 때마다 나의 믿음은 길 잃은 미아가 되었다.

샬레에서의 첫날 성체조배를 해 볼까 하는 막연한 생각에 긴장과 두려운 마음으로 도전을 외치고 방문을 열었다. 문을 여는 순간 공항에 마중 나오셨던 잔 다르크 수녀님을 마주쳤을 때 용기를 내어 성체조배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수녀님은 “마누아로 가실래요?” 하시고는 마치 영화 속이나 나올 법한 신비스러운 곳으로 나를 이끌고 가셨다.

복도 끝 어두침침한 곳의 계단을 올라 문을 열고 들어가니 다시 어둠 속 돌계단을 오르고 여긴가 하면 또다시 미로 같은 곳으로 굳게 닫힌 문을 열어 달팽이 계단을 올라 도착한 곳이 소박하고 아담한 마누아 기도실이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곳이 1880년 샬레 수녀원 시작 때 처음으로 성체를 모셨던 곳이다.)

들어서는 순간 그곳은 설명이 필요 없는 평화 그 자체였다. 그 아늑함과 따뜻함, 평온함 속에 나는 두려움 없이 첫 조배를 하게 되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조배를 하는 동안 나는 마치 어머니의 따뜻한 품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조배를 통해 하느님을 조금



이선자 세실리아(영적 가족 6기)

더 알아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렵듯이 체험한 것이다. 모든 것에 목말라했던 그 갈증에 이제 딱 한 모금의 물을 마신 것이다. 하느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설렘과 벅찬 감동도 함께 왔다. 늘 갈망해온 믿음의 뿌리, 영혼의 목마름 속에 하느님의 이끄심을 느꼈던 설명 할 수 없는 그 순간들이 아직도 설렘으로 남아있다.

아직 나는 나와 내 가족만을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버벅거리는 삶을 살고 있다. 내 이웃, 타인을 관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일상 안에서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갈지 찾아보는 시간을 갖기 원하고 그러기 위해 조배를 생활화해야 겠다.

성체조배를 통해 내 삶 안에서 나를 얼마나 깨고 부수고 나올 수 있었는지 알 수 없고, 나를 얼마나 변화시켜 주실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길을 열어 주심에 감사 드린다. 어둠의 통로를 지나 마누아 기도실의 평화를 맞이한 순간처럼 굳게 닫힌 내 마음의 빗장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 주시기를, 내 마음의 어두움을 비추시어 올바른 믿음을 주시고 당신의 완전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드려 본다.



이명진 예로니모(영적 가족 8기)

성지순례를 한 달 정도 앞둔 어느 날 나는 십자가의 길 목상에 하루를 꼬박 소비하며 몇 날 며칠을 책상 앞에 앉아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러다 작은 바람 한 줄기를 느꼈는데, 그 바람이 떠올려 준 것은 너무도 흔한 '일치'라는 단어다. 간혹 있는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나는 길을 떠난다. 같은 장소를 두 번 간다고 어찌 설렘이 없을까? 7년 전과 변함없이 반겨주는 샤텔레다.

추억의 냄새가 정겹다. 하지만 4박 5일 동안 나는 이 집에서 잠을 잘 수 없다. 인원이 많아 이미 결정된 일이다. 충분히 감수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줄 알았다. 내가 묵었던 그 방, 작고 불편한 방, 어느 수녀님이 내준 방, 고맙고 안타까운 방. 그리움을 끌어안고 회포를 풀 길 없어 나는 마음이 어긋나고 비틀 렸다.

날이 가고 장소도 바뀌면서 심사는 부드러워졌지만, 코앞에서 교황님을 보고도 별 흥이 안 난다. 그러다가 평생 잊지 못할 공동체를 방문한다. 바티칸 '성안나 공동체'이다. 하지만 열성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던 수녀님의 몸짓과 표정은 슬로 비디오처럼 흘러가는데 생각나는 것이 없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 무음 비디오처럼 흘러가는데 생각나는 것이 없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 무음 처리가 되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음소거라니? 그런데, 그날 또 바람이 불었다. 숙소로 돌아가는 전철 역사에서 그 바람은 흥 그라시아 자매님을 한 바퀴 훑고는 그분의 심정을 고스란히 내 안에 심어놓고 홀연히 사라졌다. 우리 둘은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감정을 공유했다. 누구에겐지 모를 미안함. 부끄러움, 말랑말랑한 회개의 느낌까지.

나는 그 바람이 심어놓은 것을 잊을 수 없어 시간이 날 때마다 들여다보다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들을 하나하나 바라볼 수 있었다. 정체를 확신할 수 없었던 그것들을 집으로 돌아온 지 열흘도 더 지나 내가 찍은 동영상을 본 후에야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예전에 아 무도 모르게 내가 버렸던 나. 굴종으로 무릎 꿇었던 나. 비겁 한 모습으로 숨어 있던 나. 그날의 바람은 이런 내 존재의 조각들을 나의 가슴속에 불러다 놓았다. 왜 그랬을까?

이제야 알겠다. '성안나 공동체'에서의 무음 처리 범인은 하느님이다. 하느님은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온전한 나, 내가 만들려고 했던 '잘 다듬어진 나'가 아니라 원래 하느님이 만든 나. 흠이 있어도, 결함이 있어도 하느님은 나의 전체를 원하신다. 일치란 전체와 전체의 만남인 것이다. 어디로 부는지 모를 바람을 나는 눈을 감고 그저 느낄 따름이다.



하늘나라 친구 이본느

선교 파견을 받고 처음 한국을 떠나 프랑스에 왔을 때, 한국에서 불문학을 전공하고 번역 일까지 했던 것은 다 어디로 갔는지 간단한 불어도 입을 떼기가 어려웠다. 불어 회화 학원에 등록했는데, 수준 정하는 시험을 볼 때 처음 보는 남자가 푸른 눈으로 똑바로 바라보며 질문을 하는데 어찌나 긴장되던지 대답이 머릿속에서만 빙빙 돌고 말이 되어 나오지를 않았다.



원 진숙 말가리다 수녀

그 결과, 불어를 한 마디도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지 제일 초보반에 배정하여 “이것은 책입니다”, “이것은 책상입니다”를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학원을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마침 외국에 선교 갔던 프랑스 수녀님 한 분이 돌아와 우리 공동체에서 도보로 30분 거리에 있는 요양원에 살게 되었다. 갑자기 이름 모를 병에 걸려 몸이 마비되기 시작하여 귀국한 것인데, 생명이 일 년도 못 남았다고 의사가 말했다고 한다. 이름은 이본느, 66세, 아직은 젊은 나이인데. 만나러 가니 휠체어에 앉은 이본느가 미소로 맞아 준다. 지체는 못 쓰지만, 말은 할 수 있으므로 나에게 불어 수업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기꺼이 학원을 그만두고 이본느에게 매일 한 시간씩 수업을 받으러 갔다.

이본느는 책을 거꾸로도 읽을 수 있었으므로, 책 한 권을 내 앞에 놓고 읽으면, 이본느가 내 발음도 고쳐 주고 여러 가지 표현의 의미도 설명해 주었다. 내가 책을 읽는 동안 생각나는 것들에 대해 말을 하면 이본느가 그 문장을 바로잡아 주면서 표현력을 진보시켜 주었고, 길에서 본 광고 문구, 신문에서 본 구절들에 대해 질문을 하거나 식탁에서 자매들

이 왜 웃었는지 물어보면 답을 해 주었다. 그뿐 아니라 약자로 표기된 정당 이름에서부터 프로방스 지방의 형겅 신발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어 프랑스 생활에 적응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기쁘게 불어 수업을 받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언제나 슬펐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이본느, -하기야 우리가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지만-, 머지않아 우리 곁을 떠날 이본느를 생각하며 가슴이 아팠다. 그의 얼굴은 언제나 평온했지만, 마비는 무척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갔다. 처음에는 두 다리만 못 쓰는 상태였는데, 팔 한쪽, 또 다른 쪽에도 마비가 왔다. 그래서 책 페이지를 넘기지 못해 그의 주요 소일거리인 독서를 할 수가 없었으므로 턱으로 눌러 페이지를 넘기는 기계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턱에 힘이 약해지자 스위치를 누를 수가 없어 그나마도 못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마비가 진행되어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되면 완전히 벽 속에 갇히는 셈이 아닌가, 이를 어쩌나 싶어 나는 무서웠다.

하루는 이본느의 얼굴이 붉고 푸르고 검게 엉망이 되어 있었다. 실수로 앞으로 고꾸라져 온통 멍이 든 것이었다. 혼자서 일어설 수도 없었으므로 간호사가 올 때까지 그렇게 바닥에 엎어져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본느는 웃으며 말했다. “남편한테 언어맞은 부인 같지? 남편이 없어 그런 의심은 안 받으니 다행이지.” 나는 웃지도 울지도 못한 채 가슴만 저렸다.

며칠 후 수업을 받으러 갔더니 이본느가 목이 쉰 듯 말을 제대로 못 했다. 그래서 감기에 걸린 모양이구나 하며 수업을 포기하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퍼뜩 떠오르는 생각! 아, 목소리까지 마비가 된 모양이구나! 오, 하느님!!

다음날, 그를 만나러 가서 떨리는 마음으로 물어보았다. 목소리에까지 마비가 온 거냐고. 그렇다고 이본느는 평온하게 대답했다. 그 순간 나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말았다. 그 앞에서 평평 울어 버린 것이다. 오히려 이본느가 나를 위 로했다! “병 초기에는 나도 하느님께 반항을 많이 했지. 그러나 마침내 받아 들이고 나니 마음에 평화가 왔어. 하느님은 좋으신 분이야. 일생 동안 나에게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셨고, 많은 좋은 것을 보게 해 주셨고, 내 인생에 늘 함께 계셨지. 이 병이 나기 전까지는 항상 건강하게 살았어. 한 번도 병원에 가 본 적이 없고, 새벽에 제일 일찍 일어나는 사람도 나였지.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오직 이것 하나만을 원하도록 기도해 줘.”

성탄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홉 명이나 되는 이본느의 형제자매들이 그와의 ‘마지막 파티’를 준비했다. 음식과 성탄 장식과 꽃까지 모든 것을 가족들이 가지고 와서 수녀원 공동방에 잔칫상을 차렸다. 아직 생존해 계셨던 이본느의 어머니, 형제자매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모두 모이니 거의 50명이 되었다. 이 가족 잔치에 이본느는 나를 초대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으나, 머지않아 이본느를 떠나 보내게 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숨죽인 슬픔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 나는 이본느 곁에 앉아 음식을 집어 이본느의 입에 넣어 주고, 한복을 입고 노래도 불렀다. 목이 메어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

겠었다.

연말이라 한국에서 달력이 왔기에 이본느에게 선물로 주었더니, “내가 보지도 못할걸.” 하며 사양한다. 아닌 게 아니라, 해가 바뀌자 그의 증세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 나는 로마 본부에 다녀오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떠나는 날 아침 일찍 이본느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다. 이것이 어찌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해 그를 껴안아 주고 나오면서 눈물을 철철 흘렸다.

처음 가 보는 로마를 시름에 잠겨 대충 본 후에 더 있어도 되는 것을 서둘러서 돌아왔다. 다행히 이본느가 아직 살아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를 만나러 갔다. 이본느는 고개를 간신히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날 밤에 세상을 떠난 것이다.

마음 아프다는 말을 가슴 아프다고도 하는 까닭을 그때 알았다. 마음이 너무 아프니 신체적으로도 가슴이 정말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장례 후에 이본느의 여동생이 마지막 잔치 때 찍은 사진과 이본느가 쓰던 성무일도서 갈피에 들어 있던 상분을 주었다. 성모님의 상분이었는데, “예!”의 성모님이라고 쓰여 있고, 그 아래에는 “항상 주님께 “예!”하는 삶을 살게 해 주소서”라는 기도가 적혀 있었다. 그의 삶의 요약이었다.

이본느의 동생은 또 편지 하나를 내밀며 이렇게 말했다. “네가 로마에 가고 없을 때 언니가 나에게 받아쓰게 한 거야. 아마 네가 돌아오기 전에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가 봐.”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말가리다, 내가 하늘에서 늘 너를 위해 기도할게. 그러면 너는 땅에서 활동으로, 나는 하늘에서 기도로 미션을 함께 계속하는 거야.”

후원금은 아래 은행으로 입금자명(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실 분)으로
자동이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재) 성 프란치스코 수녀회

우리은행 072-475366-13-401 농협 100072-51-060834

담당자: 010-2821-8174 수녀원 : 02-852-0939

E-Mail : fmmhelperkor@daum.net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 8월 1일 ~ 2024년 11월 30일까지 입금하신 후원자 명단

(재)고려문화재단	(주)토초경	(주)버닝하트	(주)헬펠	LEEMYUNGIL	가정동빈	첸시오	가좌동	강건인	요순
강경소	강경아	강대홍	강미현	강석준	강성래	강소영	강속자	강연호	강고석
강성철	강승현	강승희	강정아	강재영	강정아	강지영	강창용	강필규	곽현숙
구승모	구웅회	권석남	권순영	권순하	권양자	권영미	권영오	권정신	권중태
권희선	금부동	금창호	김영호	김광일	김정자	김경선	김영오	김경아	김경희
김광동	김광두	김철환	김기득	김규현	김규래	김남기	김덕순	김도미	김동희
김민경	(김소희)	김성애	김성욱	김성용	김성원	김성자	김성현	김세미	김세윤
김성미	(김수영)	김순철	김승주	(김건우)	김인나	김애경	김애자	김영진	김영림
김수영	김영옥	김영민	김영은	(손연희)	김영자	김영재	(허갑수)	김영준	김영준
김유정	김영은	김영은	김영은	김영은	김인자	김인화	(윤소라)	김용준	김옥란
김정매	(박치현)	김정숙	김정애	김정연	김정용	(김명신)	김정임	김정택	김정화
김주영	김주옥	김주희	(신경란)	김준희	김중길	김지선	김지애	김지영	김지욱
김진해	김희재	나숙희	최지명	김현숙	김현욱	김철애	김철환	김치자	김프란
김화자	김희재	나숙희	최지명	김현숙	김현욱	김철애	김철환	김호성	(박정식)
노석심	노인숙	노재정	노정애	당효준	이순희	디딤돌	라파엘	류성희	마선안
문경애	문미형	문병기	문상원	문성식	문준식	문희정	민들레	복지회	민병관
바이올	가제주	이도점	(고여숙)	박권종	박금난	박기선	박도숙	박동우	박문자
박병욱	(송규)	박병주	박상미	박상숙	박선자	박선정	박선하	(이옥란)	박성은
박소진	박수민	박수인	박순옥	박순자	박승민	박승섭	박승현	박신애	박연애
박은영	박은정	박은희	박이라	박인호	박장서	박재용	박정순	(임현서)	박정연
박준우	(몽포르)	27	박지우	박지원	박진	박진희	박찬순	박찬주	박찬희
박태분	(최민정)	박해정	박해필	박해필	박형식	박현희	박혜윤	(신상빈)	박혜윤
박홍준	박화자	박희수	박효정	박희순	박미래	방웅	방진	배경필	배선열
배철희	백미자	백성대	백승혜	백혜정	변순녀	변태식	부산야	음재속회	사랑나무
삼성에	이플러스	(주)	서덕순	(서득순)	서명자	서명희	서성배	서수진	서옥숙
서향란	서혜경	서혜석	석남민	첸시오	석상령	성문희	성아가	다사	성영신
손우덕	손영은	손정숙	손정숙	손동규	손동규	송경수	송기영	송명순	송선자
송오복	송정애	송채영	송혜경	신경숙	신동규	신동진	신명기	신명인	신승일

신재진	신정동	예로니모	회 신주선	(신유경)	신주화	신지은	신혁철	신현주	신희식	안미령	안성홍
안송민	안승미	안양금	안양님	안엘리사	벳 안창찬	안자영	(조진상)	안정미	안정임	양기흥	양미경
양영자	양윤석	양윤재	양중환	양천애	덕회 양현임	염나영	여은지	여지은	연수성	당 연희동	농형석
영적자	족8기	오귀선	오말희	오성연	오성연	오세윤	오소영	오숙자	오승훈	오영희	오용석
오옥형	(최민귀)	옥승윤	우상혁	우영희	우정수	우혜령	운남빈	첸시오	원ENG	(김진식)	원당동
원세경	위지은	위찬우	유경진	유길현	유명숙	유미경	유민숙	유병춘	유성재	유수민	유승연
유영재	유울리	안나	유은분	(세인부)	동산) 유은정	유주영	(이성혜)	유주원	유채영	유춘성	유충식
유희준	(양정희)	윤동배	윤규현	윤명희	윤정희	윤한희	윤현숙	윤형욱	이가영	이갑수	이강울
이경재	이계호	이관훈	이관진	(홍기원)	이광희	이구	이금용	이기향	이기혁	이남순	이다니엘
이동현	이명실	이무웅	(이정화)	이문용	이미란	이미란	이미희	이민원	이민희	이병우	이병철
이복순	이상화	이상수	이상오	이상용	이상아	이상엽	이상호	(조봉례)	이수진	이승욱	이승은
이선자	이연경	이연리	이연욱	이영림	이영목	이영복	이영상	이영애	이영옥	이영혜	이욱경
이요안	이원재	이유리	이윤경	이윤신	이윤옥	이은경	이은미	이은수	이은영	이은임	이은정
이은희	이희재	이인선	이인선	이인선	이인선	이인선	이인선	이인선	이인선	이인선	이인선
이정란	(최윤)	이정신	이정숙	이정원	이정준	이정하	이정현	이정환	이정희	이정희	이재우
이종은	이종호	이주배	이지영	이지란	이진서	이진아	이찬화	이철아	이춘석	이태금	이필단
이해일	이현준	(이창석)	이형민	이혜란	이혜미	이혜숙	이홍식	이화연	이후선	이희열	이희영
인동	프 인용석	인천교	인천교	인천교	인천교	인천교	인천교	인천교	인천교	인천교	인천교
임지원	임호	임희남	임희진	장미자	장미자	한국전	문건설	장민경	장민정	장민호	장병숙
전성민	전순덕	장영문	장영표	장원태	장인호	장현호	전병호	전순임	전순자	전양현	전유정
전동열	전명국	전정미	전정희	정민정	정서원	정선아	정성민	정소영	정수연	정수용	정승원
정영숙	정영필	정우영	정우현	정은희	정이영	정인순	정일훈	정재영	정재훈	(정지호)	정점민
정진명	정진숙	(조남섭)	조금자	조명숙	조미래	조병호	조상위	조석금	조선희	조성임	조성자
조경민	조규진	(조남섭)	조금자	조명숙	조미래	조병호	조상위	조석금	조선희	조성임	조성자
조현주	조혜영	조화숙	조화영	조희공	조희무	주)가나	스틸 주연아	중앙고	속영년	회 지정희	진숙
진숙	진승희	최경아	최재경	최명지	채은정	천류미	천정원	천담동	모금 천담	카타리나	청라빈
최경호	(최경호)	최연자	최연화	최유자	최유자	최유자	최유자	최유자	최유자	최유자	최유자
최인숙	최일순	최재석	최정선	(윤각의)	최지영	최지은	최향미	최화연	최효순	추상식	(장형숙)
추유경	(이승화)	추중현	태계남	평화장	터 하봉	남 하순	자 하옥	경 하재	영 한국	순교성	인빈
한인숙	한대경	한명옥	한희나	한상곤	한상곤	한상곤	한상곤	한상곤	한상곤	한상곤	한상곤
한민숙	한명숙	한홍민	한홍민	한홍민	한홍민	한홍민	한홍민	한홍민	한홍민	한홍민	한홍민
홍말미	홍명숙	홍명숙	홍명숙	홍명숙	홍명숙	홍명숙	홍명숙	홍명숙	홍명숙	홍명숙	홍명숙
황미	황명숙	황명숙	황명숙	황명숙	황명숙	황명숙	황명숙	황명숙	황명숙	황명숙	황명숙

